

여의도를 지배하는 팬덤



기고
안 동 현
前 국민의힘 윤리위원

정치권은 바야흐로 ‘팬덤’의 시대다. 과거 노사모가 정치인 팬덤의 서막을 알렸다면, 지금 여의도를 지배하는 팬덤은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민주당의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의 등장을 보며 “전체주의적 행태”라 비판하던 보수 정당 역시, 이제는 팬덤 현상 한가운데 서 있다. 이러한 팬덤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상만 다를 뿐, 방식은 놀랍도록 유사하다. 특정 인물을 절대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악으로 간주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인물을 아이돌처럼 소비하고, 그를 맹목적으로 호위하는 이 현상.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려 할 새로운 정치 문화인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중우(衆愚)정치로 퇴행하는 징후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의 무력화다. 과거 정치는 정당이라는 시스템 안에

서 정책과 노선으로 경쟁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능동적인 대중이 등장한 지금, 정당의 시스템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제는 정당을 거치지 않고 유력 정치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내 손으로 정치인을 키우고 지킨다는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장에만 머물던 유권자를 광장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로 끌어냈다.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힌 참여의 에너지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팬덤 정치의 핵심 동력은 배타적 분노다. “우리 정치인을 지켜야 한다”라는 비장함은 내부의 건전한 비판조차 배신으로 낙인찍는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당내 비판 세력을 ‘수박’이라 부르며 좌표를 찍었던 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지금의 팬덤 정치는 정치인을 공적 대리인이 아닌, 욕망이 투영된 아바타이자 아이돌로 변질시키고 있다.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과 자정 능력에 있다. 그러나 팬덤의 화력이 당의 시스템을 압도하는 순간, 정치인들은 당론이나 양심보다 당원 게시판의 여론을 먼저 살피게 될 것이다. 극단적 목소리만 과대 대표되는 반

지성주의가 당을 잠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팬덤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팬덤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문화라고 긍정하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당은 팬덤의 함성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은 팬덤 뒤에 숨은 비겁함을 버려야 한다. 지지자들의 환호가 달콤할지라도, 그들이 배타적인 공격성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자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말로 진정한 정치인의 자격이다.

지지자들 또한 변해야 한다. 진정한 지지는 맹목적인 숭배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지, 품격을 잃지 않는지 감시하는 눈을 가질 때 팬덤은 비로소 건강한 정치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의도를 집어삼킨 팬덤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흥기가 될지, 정치를 혁신하는 도구가 될지는 오직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맹신하는 신도가 될 것인가, 깨어있는 시민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前 국민의힘 윤리위원

‘먼저 온 미래’의 과제



기자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오천피”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퇴근길 대중교통 안, 옆 자리에서 들려온 말이다. 코스피 4000을 넘어선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5000이 현실이 됐고, 먼 미래로 여겨졌던 숫자가 일상이 됐다. 이른바 ‘먼저 온 미래’다.

다만 선불리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른 것 아닐까.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에 그쳤고, 4분기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숫자만 보면 자본시장은 질주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체력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증시의 쏠림도 분명하다. 코스피 상승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익 전망이 급변한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컨센서스와 증권사의 중기 전망은 지수 상승 속도에 비해, 시장의 구조적 완성도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차기 미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이라는 변수 하나에 오천피는 하루 만에 크게 흔들렸다. 지난해 53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2일 장중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투자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1억개를 넘었지만, 문제는 이 대중화가 기업의 펀더멘털과 거버넌스·실물경제 개선과 보폭을 맞추고 있느냐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승은 일부 대형주의 주가 급등 결과일 뿐, 중소형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ROE 개선 없이 이어지는 주가 상승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코스피 5000은 결과일 뿐, 개혁의 완성이나 펀더멘털의 확산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은 개인의 판단력 문제가 아니다. 참여는 집단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학습·정보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지수의 높낮음에 환호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 숫자를 떠받치는 기업의 수익성·거버넌스·실물경제가 얼마나 넓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투자자의 태도 문제를 넘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신뢰가 함께 따라와야 가능한 일이다.

건강한 기업과 성숙한 투자 문화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3일 (음 12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60년생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72년생 창이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84년생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편이 효율적. 96년생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61년생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73년생 총돌은 조건을 가려 보는 대응이 유익. 85년생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97년생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62년생 금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판단이 효율적. 74년생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86년생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98년생 이동은 조건을 가려 보는 편이 유익.



63년생 지금은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75년생 당장은 창이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87년생 이번엔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편이 효율적. 99년생 한 번쯤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64년생 가능하면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76년생 오늘은 총돌은 조건을 가려 보는 대응이 유익. 88년생 지금은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00년생 당장은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65년생 이번엔 금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판단이 효율적. 77년생 한 번쯤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89년생 가능하면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01년생 오늘은 이동은 조건을 가려 보는 편이 유익.



66년생 지금은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78년생 당장은 창이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90년생 이번엔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편이 효율적. 02년생 한 번쯤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67년생 가능하면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79년생 오늘은 총돌은 조건을 가려 보는 대응이 유익. 91년생 지금은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03년생 당장은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68년생 이번엔 금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판단이 효율적. 80년생 한 번쯤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92년생 가능하면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04년생 오늘은 이동은 조건을 가려 보는 편이 유익함.



69년생 지금은 학습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81년생 당장은 창이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93년생 이번엔 감정 표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편이 효율적. 05년생 한 번쯤 가정사는 말을 아끼는 편이 유익.



70년생 가능하면 일의 판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82년생 오늘은 총돌은 조건을 가려 보는 대응이 유익. 94년생 지금은 정돈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편이 효율적. 06년생 당장은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선을 분명히 하는 선택이 유익.



71년생 이번엔 금전은 한 단계 나뉘 보는 판단이 효율적. 83년생 한 번쯤 일 처리는 말을 아끼는 쪽이 유익. 95년생 가능하면 몸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선택이 효율적. 07년생 오늘은 이동은 조건을 가려 보는 편이 유익.



김상회의四季

삼재

예로부터 삼재는 식구 중에 삼재가 들면 집안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몸과 마음이 분주해진다. 근심도 근심이지만 삼재를 잘 넘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삼재의 기본적 의미는 대삼재(大三災)와 소삼재(小三災)로 나뉜다. 대삼재는 물, 불, 바람으로 인한 수재, 화재, 풍재를 칭한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재해였고 그 재해는 물, 불, 바람으로 인했다. 과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현대라 할지라도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등 물, 불, 바람의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의 무력을 실감한다. 소삼재는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 즉 도병(刀兵), 기근(飢饉), 질병(疾疫)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더하여 관재구설이나 인간사 횡액은 삼재 때 많이 발생한다.

삼재를 따질 때는 십이지(十二支)에 따라 세 종류의 띠가 삼 년을 단위로 하여 첫해를 들 삼재, 두 번째 해를 늘 삼재, 셋째 해는 날 삼재로 나눈다. 속설에는 들 삼재보다 날 삼재가 더 무섭다는 말도 있는데, 삼재가 나가는 해라고 경계망동하지 말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삼재라 하여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니 만약 대운이 좋게 들어온 개인의 경우라면 그 사주와 운세에 따라 복 삼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꾼 IMF 때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때 오히려 재운의 운세가 상승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사주명조의 힘이 더 강했다는 뜻도 된다. 영웅호걸은 평화의 산물이 아니라 급변하는 혼란기에 탄생하듯이 말이다. 그러니 삼재가 들었다고 두려워하기보다 우선 자신의 운기를 살펴야 한다. 삼재는 겁을 주기 위한 기호가 아니라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인생사 유비무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술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4	3
8				4				
	7						8	5
								5
			6		7			
	6							
3	8						1	
				8				4
5	4	2			6			

	2	6		9	7			1
		9			1	3		
								4
	7		3					
							2	
								5
1								
				6	3			7
3				2	4		5	1